

2008 새해설계 ①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 이금중

‘따뜻한 사랑으로 노인회 이끌어 나간다’

“회원들 각종 대회 참가로 활기찬 노후 보내야”



포천시 사회단체장의 2008년 새해설계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회를 기대한다. 순서는 무순이던 인터뷰가 가능한 단체부터 소개하기로 한다. 특히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사회단체는 본사와 협의하여 인터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편집자주)

2006년 8월 25일부터 인기 4년의 업무를 시작한 이금중(사진·78)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은 “284개 경로당과 14개 분회, 4개 노인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천시지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특기할만한 성과에 대

해 이 지회장은 “5월 어버이날 행사에 종식문제를 각 읍면동별로 1인당 1만원씩 지급하여 자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결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맛있는 종식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또 모범경로당, 모범 노인, 노인복지기여자 등을 대상으로 시상하기도 했다.

또 지회장배 노인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여 실력을 향상하고 경기도게이트볼대회에 출전한 포천 대표가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또 도연합회 휘호대회에서 2,3위를 차지했으며 포천자체에서 개최된 제5회 휘호대회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 포천시지회는 도연합회 44개 지회중 최우수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이는 포천시지회 자체적으로 노인지도자혁신교육을 실시한 것이 높이 평가받았다. 노인지도자혁신교육은 포천시 관내 284개 경로당 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이다.

포천시지회는 2007년 제1회 노인 바둑·장기대회를 개최해 초등학생들과 노인들이 함께 실시하여 세대간 공유할 수 있는 점을 찾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노인취업센터를 설치해 2006년도에 140명, 2007년도에는

204명을 취업 알선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한자교실을 관내 13개 초등학교에 21명의 강사를 보내 한자교육에 나서고 있다.

또 소홀음, 일동면, 관인면 등 시가지에서 교통안전봉사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경로당 관리 부서를 설치해 앞으로 경로당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해 나갈 계획이다.

1만6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는 매년 국내외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일도 추진하고 있다. 경로우대 해주는 여행사를 통해 국내외 선진지를 회원들이 견학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상품가치 또한 제주도의 경우 27만 원 선의 상품을 노인회에서는 18만 원에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회장은 취임이후 관내 100세 이상 연로한 노인들을 1년에 1회 방문하여 포천시 노인들을 대표해서 위로하고 있다.

노인회 사업을 추진하면서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이 지회장은 “노인회에 지원하는 운영 자금이 너무 적어 더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포천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노인회에 관심을 가져주시

고 대우는 못해주시더라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불친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또한 지역의 이장들이 1년에 한번도 경로당을 방문하는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장직을 너무 오래 수행하는 사람도 있다. 또 이장들이 경로당 업무를 너무 간섭하는 경향도 있다. 이는 포천시 경로당에서 나오는 여론이다. 올해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지회장은 회원들에게 “무자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더 건강하시고 남은 인생 즐겁게 보내시기 바란다”며 2008년 개최하는 게이트볼 대회, 노소바둑대회, 휘호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당부하고 있다.

올해 총선과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이 지회장은 “가장이나 사회에서 웃어뜰을 공격하고 야합사람을 사랑하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항상 직원들과 회원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내고 있는 이금중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의 이름다운 지도력이 2008년 새해에도 멋지게 발휘되어 포천시노인들이 활기찬 생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국자유총연맹 제9대 전석주 지부장 취임식

전임 이주석 지부장 “고문으로 연맹 일 앞장서겠다”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 지부장 이취임식이 1월18일 오후4시 용정웨딩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이임사를 통해 전임 이주석 지부장은 “자유수호를 위해 다양한 일을 추진해오다가 다행히도 연맹경험이 많은 신임 전석주 지부장에게 지부장 자리를 물려주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유수호를 위해 참석하신 내빈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당부했다.

전석주 제9대 지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새롭게 지부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뜻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안보게도에 앞장 서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1954년 아시아민족 반공연맹 창립이후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과 한국자유총연맹 및 포천시지부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 지부장 이취임식이 1월18일 오후4시 용정웨딩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를 창립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흥부 및 항구적 발전과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이념단체와의 교류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활동, 특정한 안보태세에 기초한 평화통일운동, 민주시민 의식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건전한 민주공공체 건설을 위한 봉사활동, 국민

통합 및 남북화해 캠페인, 유엔 NGO 및 국제교류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건전한 민주공공체 건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어머니포순이봉사단 활동과 지구촌 재난구조단 활동도 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스피치·논술 무료 강의 소홀농협 조합원 자녀 대상

소홀농협협동조합(조합장 고희대)은 조합원자녀중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피치와 논술 지도를 실시했다.

방학 때마다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강의는 소홀농협 경제사업소 대강당에서 45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강은 델리맨스와 웅변, 글쓰기 순서로 실시한 특강은 8일간 진행됐으며 1월11일 수료식을 갖고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공개수업을 실시해 높은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번 특강에 참가한 윤지은(추산초 2년) 어린이는 “웅변을 배우게 되어 더욱 용감해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밝혔으며 김성경(축삭초 6년) 어린이는 “우리 한글 바로 알기와 논술 그리고 중학교에서 다루지는 수사법 등을 미리 공부하게 되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강을 담당한 소홀농협 김은희씨는 “21세기 교육에서 어린이에게 웅변과 글쓰기 공부 없이는 안될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세 번에 걸쳐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옥자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새해 동정



이각모 재경포천시민회장 방문

3천여 재경포천시민의 대표로 선출돼 2008년부터 업무에 들어간 이각모 재경포천시민회

장이 1월10일 포천신문사를 방문해 재경포천시민회 사업 및 운영계획을 밝혔다.



상록수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상록수회(회장 임경순)는 1월17일 임경순 회장과 이효정 총무가 포천신문사를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50만원을 기탁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



박영호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장 방문

포천과 철원지역 국민연금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박영호 포천지사장이

1월1일자로 취임하여 1월17일 포천신문사를 방문해 업무협조 요청 및 사업계획을 밝혔다.



포천시의회와의 간담회

포천시의회(의장 이강림)와 (주)포천신문사(대표이사 최호열)와 간담회가 1월18일에 개최돼 2008년 한 해 동안 16만 주민을 대표하는 포천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바른 시정

을 펼칠 수 있도록 본회의 역할을 다할 것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언제나 바르고 깨끗한 포천사회 건설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태안반도 기름띠 제거봉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 임원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회장 윤장일)는 1월15일 오후 6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4일 태안반도에 기름띠 제거를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자고 의결했다. 이날 윤장일 회장은 “기름유출사고 이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태안반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사회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의 회원 여러분들

이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게 되었다”며 “이번 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들과 아픔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총선과 포천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라도 평통 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우리사회를 바로 이끌어가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는 1월15일 오후6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4일 태안반도에 기름띠 제거를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자고 의결했다.

“영북호 선장 최선을 다하겠다”

제29대 이성원 영북면장 취임식에서 밝혀

이성원 제29대 영북면장 취임식이 1월16일 오후1시 영북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성원 면장은 “제 고향 포천에 돌아와 함께 호흡하며 생활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민의 훌륭한 아이디어와 조언이 필요하니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면 면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며, 영북호라는 배를 같이 탄 것이므로 영북호의 선장노릇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9대 이성원 영북면장은 1958년 포천시 창수면 오기리에서 태어나 1977년 포천중고를 졸업하고, 1979년 신홍전대 치과기공, 2004년 한경대학교 행정학 학사, 2007년 아주대 사회복지학 석사를 취득했고, 1983년 포천시 소홀읍 행정9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포천읍사무소, 포천시 사회과, 새마을

과, 문화공보실에서 근무하다 1991년 11월 경기도청 국민운동과로 이진, 경기도 기획담당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정책기획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를 거쳐 2007년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08년 1월15일까지 경기도 행정관리 담당관실 민원여권담당으로 근무하다 2008년 1월16일 제29대 영북면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제28대 배상택 영북면장은 취임식에 앞서 가진 이임식에서 “다들 그냥 지나가는 자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공직생활 중 처음 하는 면장으로서의 생활에 대해 기대와 설렘, 그리고 떨림이 있었고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온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데 대해 아쉬움이 남으며 그동안 도와주시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영복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hsd5333@hanmail.net



이성원 제29대 영북면장 취임식이 1월16일 오후1시 영북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부이야기

결혼하는 딸 위해 직접 제작한 웨딩드레스

포천시 여성대학에서 현대의상과 초급, 중급 및 고급과정을 수료하고 결혼하는 딸을 위해 웨딩드레스를 직접 제작해 지난해 12월 22일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포천시지원봉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신숙기 간사의 어머니 손명자씨다. 어머니가 직접 제작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숙기 간사는 지난해 12월22일 포천중앙웨딩홀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특히 이 드레스는 신 간사의 체형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맞춤형으로 제작해 본인도 물론 결혼식에 참석한 내빈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요즘 결혼하는 신부들은 대부분 예식장에서 웨딩드레스를 빌려 입게 되는데 그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보통 60~70만원에서부터 새것은 빌려 입는 것만 1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손명자씨가 직접 제작한 웨딩드

레스는 드레스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패치코트, 잠금 등 약세리까지 모두 20만원정도 투입되었다고 한다. 저렴한 비용에 개인이 평생 소장할 수 있는 웨딩드레스를 갖는



어머니 손명자씨가 직접 제작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숙기 간사(왼편은 손명자 씨)

새로운 추억

심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우리세대만이라도 서로 정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으로 교류하고 아름답게 나이를 먹으며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약이 없이 한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걸 종종 봅니다. 아주 친한 친구는 서로 잘 알아서 오해가 없지만 새로운 친구들은 시행착오인지 잘 파악을 못해서인지 때때로 서로 불편한마음을 생기기도 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듯이 인간관계도 나이에처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차 한잔보다는 술 한잔이(?) 서백

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결혼이라는 새로운 삶의 첫 출발인 결혼식을 위해 단 하나뿐인 소중한 웨딩드레스를 딸을 위해 한뼘 한뼘 정성으로 지었다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머니가 지어주시는 웨딩드레스는 단순한 드레스가 아닌 앞으로 결혼생활에 있어서 아낌없는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손명자씨는 그동안 포천여성대학에서 갖고 닦은 실력으로 이미 양장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도 취득한 실력가이며 현대의상과 자원봉사 동아리인 한뼘 사랑의 회장 및 포천시 여성대학 동아리연합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대학에서 배운 기술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환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 관계에 윤활유 노릇을 합니다. 그렇다고 술 예찬론자는 절대 아닙니다(ㅠㅠ). 같은 시대에 태어나 비속한 사고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은 동지 같기도 하고 때로는 피붙이보다도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인생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나에게 친구란 그런 존재로 내게 다가옵니다. 나 또한 다가가고 친구와 행복을 추구하고 우정을 나누고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눈이 평평은 오늘 새로운 친구와 한잔하러 나갑니다.



구애경 주부명예기자